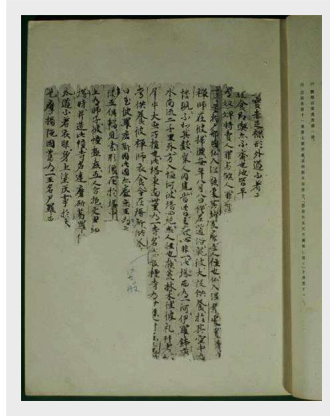


# 혜초[慧超]

## 다섯 천축국(天竺國)을 간 밀교(密敎) 고승

700년경 ~ 미상



왕오천축국전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한국학중앙연구원) /

### 1 개요

혜초(慧超, ?~?)는 8세기 당(唐)에서 활동한 신라 출신의 승려이다. 그는 730년경 천축국(天竺國), 곧 지금의 인도로 구법(求法) 여행을 떠나 4년 동안 불교의 성지들을 순례하고 돌아온 후 견문록인 『왕오천축국전(往五天竺國傳)』을 저술하였다. 또 금강지(金剛智, Vajrabodhi, 669~741)와 불공(不空, Amogha-vajra, 705~774) 등에게 밀교(密敎)를 배우고 수행하며 경전 번역에 힘쓴 중국 밀교의 고승이다.

### 2 불법(不法)을 구하러 다섯 천축국을 가다

혜초(慧超, 혹은 惠超)는 신라인이었다는 것 외에 알려진 인적 사항이 없다. 혜초가 704년에 태어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지만, 이는 연구자들이 그의 스승 금강지(金剛智, Vajrabodhi, 669~741)의 행적을 혜초의 것으로 혼동하여 잘못 알려진 것이다. 그의 활동 시기를 고려하면 대체로 700년경에 태어나지 않았을까 추정할 뿐이다. 당시 신라에서는 불교가 매우 흥성하여 많은 승려들이 당으로 유학을 갔는데, 혜초도 이러한 흐름에 따라 당으로 불법을 구하기 위한 길, 구법(求法)의 여정을 떠났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혜초의 구법 여정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불법의 근원지 천축(天竺), 곧 지금의 인도와 파키스탄을 찾아갔다.

그는 723년(성덕왕 22) 경 지금의 중국 광둥성(廣東省) 광저우(廣州)에서 배를 타고 인도네시아 수마트라(三佛齊, Sumatra)를 거쳐 인도 동해안에 상륙하였다. 당시 중국에서는 인도 전역을 동서남북과 중앙 지역으로 구분하여 '다섯 천축[五天竺]'이라고 불렀는데, 혜초도 이 다섯 지역을 차례로 돌아보았다. 먼저 인도 동부에서 석가께서 입멸하신 쿠시나가라(拘尸那, kusinagara)와 다섯 비구를 위해 최초로 설법하셨던 바라나시(鹿野苑, Vārāṇasī) 등 갠지즈강 유역의 불교 성지를 찾아보았다. 이어 2개월 걸려 이동하여 중인도를 순례했고, 3개월간 남쪽으로 가 남인도에 도착하였으며, 다시 2개월 걸려서 인도로 간 후 계속하여 북인도까지 갔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서쪽으로 이동하여 파사국(波邪國, 지금의 이란 지역에 있었던 페르시아)과 대식국(大食國, 지금의 이란과 이라크 지역에 있었던 사라센제국)까지 탐방하였다. 이로써 그